

2013년 7급공무원 기출문제 및 해설(6월 22일 시행)

문제지 형별	A형	시험시간	20분	수험번호		성명	
--------	----	------	-----	------	--	----	--

해 설

1. ③

A는 흡연을 통해 20,000원 만큼의 효용을 느끼고 B는 상쾌한 공기에 대해 10,000원 만큼의 효용을 느끼므로 코즈정리에 의해 협상을 한다면 A가 B에게 10,000원 이상 20,000원 이하의 금액을 지불하면서 흡연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면 B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2. ①

실질GDP = $\frac{\text{명목GDP}}{\text{물가지수}} \times 100$ 이므로 $\frac{100}{125} \times 100 = 80$ 이 된다.

3. ③

화폐가치의 하락, 즉 환율상승은 수출증가를 통하여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실질자산가치의 하락은 소비의 감소, 이자율상승은 투자와 소비의 감소, 재정흑자 즉 정부지출감소와 조세의 증대는 소비의 감소를 통해서 각각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4. ①

생산가능인구가 50만 명, 비경제활동인구가 25만 명이므로 경제활동인구도 25만 명이다. 이때 취업자 수가 24만 명이면 실업자 수는 1만 명이다.

실업률 = $\frac{\text{실업자수}}{\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 \frac{1\text{만 명}}{25\text{만 명}} \times 100 = 4\%$ 이고,

경제활동참가율 = $\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생산가능인구}} \times 100 = \frac{25\text{만 명}}{50\text{만 명}} \times 100 = 50\%$ 이다.

5. ②

문제의 주어진 정보를 적정통화량 공급방식 $\frac{\Delta M}{M} + \frac{\Delta V}{V} = \frac{\Delta P}{P} + \frac{\Delta y}{y}$

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물가상승률 $\frac{\Delta P}{P} = 6\% + 0\% - 3\% = 3\%$ 가 된다.

6. ③

단기에 고정비용이 매몰비용인 경우 생산중단점은 평균가변비용의 최저점이다.

완전경쟁시장의 개별기업은 가격순응자로서 기업의 수요곡선은 시장가격 수준에서 수평선이며 그것이 곧 한계수입곡선이 된다. 또한 완전경쟁시장의 공급곡선은 개별기업의 공급곡선인 한계비

용곡선을 수평으로 합하여 도출된다.

7. ④

역선택은 정보를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가 만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감추어진 특성이라고도 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대응방안으로 정보를 적게 가진 쪽에서는 선별과 강제가 있으며, 정보를 많이 가진 쪽에서는 학력을 높인다든지 품질인증을 받는 등 신호발송이 있다.

8. ②

완전경쟁기업의 노동수요곡선은 한계생산물가치($P \times MP$)곡선이다. 생수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생수의 가격을 상승시키므로 이 기업의 노동수요곡선인 한계생산물가치가 증가한다.

그러면 생수산업의 근로자의 임금은 상승하고 고용도 증가한다. 고용이 증가하면 근로자의 한계생산은 수확체감법칙에 의해 감소할 것이고 생수도 예전보다 소비량이 많아지면 한계효용체감법칙에 의해 한계효용이 감소한다.

9. ②

가격을 1% 올렸더니 수요량이 4% 감소하였으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4이다.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아모로소-로빈슨공식 $MR = P \left(1 - \frac{1}{\epsilon_d}\right)$ 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한계수입 = 2,000만 원 $\times \left(1 - \frac{1}{4}\right) = 1,500$ 만 원이다.

10. ①

잠재생산량을 초과하는 경기과열이 발생하여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긴축재정정책과 긴축금융정책을 통한 총수요억제정책이다.

11. ④

먼저 국민소득 구하는 식인 $Y = C + I + G + X - iM$ 에 주어진 자료를 대입하면

$Y = 14,000 + 0.5(Y - 8,000) - 3,000r + 5,000 - 2,000r + 5,000 + 400$

$0.5Y = 20,400 - 5,000r$

에서 총생산갭을 제거하면 $Y = Y^*$ 가 되기 때문에

$Y = 40,000$ 을 대입하여 이자율 r 을 구하면

$5,000r = 400$, $r = 8\%$ 가 된다.

12. ②

피셔효과에 의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명목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을 만큼 100% 비례적으로 상승하고 실질이자율은 불변이다.

그러나 먼델-토빈효과에 의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화폐수요가 감소하여 파생통화량이 증가하므로 명목이자율 및 실질이자율 모두를 약간 하락시켜 결국 명목이자율은 인플레이션율보다 적게 상승하고 실질이자율은 하락한다고 한다. 그래서 투자가 증가하여 경기는 더욱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3. ③

한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한국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 50원을 지급하고 기업의 이윤이 50원이 발생했다면 한국의 GDP와 GNP 모두 100원 만큼 증가한다.

대신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미국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 50원을 지급하고 50원의 이윤을 창출했다면 미국의 GDP는 100원 증가, GNP는 50원 증가하고, 한국의 GDP는 0원, GNP는 50원 증가한다. 그래서 미국의 GDP 증가분은 GNP 증가분보다 크고, 한국의 GDP 감소분은 GNP 감소분보다 크다.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한다고 해서 GNP지표가 GDP지표보다 더 중요해진다고 볼 수 없다.

GDP가 적으면 국내 경제활동규모가 적어서 경제성장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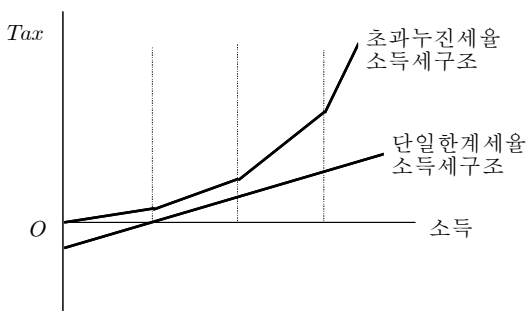
14. ④

신용중시 견해는 금융중개가 물가와 생산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견해로 은행과 차입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 발생한다.

그래서 은행은 역선택을 막기 위해 높은 이자율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자보다 신용이 높은 자에게 대출하는 신용할당(선별)을 한다. 은행이 대출을 하면 받아야 할 채권이므로 대출과 채권은 보완관계이다.

15. ④

공급중시학과들이 다음 그림처럼 초과누진세율의 소득세 구조를 각종 공제제도를 대폭 정리하고 단일 한계세율 구조로 바꾸자고 하면서 전반적인 세율을 인하할 것을 주장한 근거는 첫째, 조세 행정비용 감소, 둘째, 경제행위 교란감소를 통한 효율성 증대, 셋째, 불필요한 공제제도 정리에 따른 조세회피 방지와 경제활동의욕 증대로 인한 물가안정과 완전고용 달성 및 세수증대이다. 하지만 단일 한계세율 소득세 구조로 전반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면 앞의 근거들은 모두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재분배, 즉 수직적 공평성은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낳았다.



16. ②

환경오염에 의한 외부비경제가 발생했을 때 그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시장유인을 통한 간접 방법인 시장화, 내부화 방법으로 피구세, 기업합병, 재산권거래인 코즈정리, 오염면허제도 등이 있고, 정부의 직접 개입 방법으로 금지와 환경기준 등의 직접규제와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등의 직접투자가 있다.

이때 재산권을 할당하여 협상하는 코즈정리에서는 재산권을 피해자에게 환경권 형태로 주든, 가해자에게 오염배출권 형태로 주든 보상을 위한 필요자금이 있어야 가능하며 당사자가 많을수록 협상을 위한 거래비용이 과다해지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17. ①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외환 8억 달러를 매입하면 국제수지표의 차변에 준비자산(외화자산) 8억 달러, 대변에는 금융계정(기타투자) 8억 달러로 기록된다.

18. ③

한 나라의 교역조건은 $\frac{\text{수출재가격}}{\text{수입재가격}}$ 인데 A국이 수출품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면 일단 국내의 그 수출품가격이 인하되어 수출이 증가한다.

이때 A국이 대국이라면 국제시장에서의 그 수출품의 가격도 인하되어 A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된다.

하지만 A국이 소국이라면 이 국가의 수출품 국내가격이 국제시장에서의 이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A국의 수출품 국내가격이 국제시장의 그 재화가격 수준으로 다시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소국의 교역조건은 여전히 불변이 된다.

19. ②

헤커-오린정리에 의하면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는 노동집약재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한 국가는 자본집약재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문제의 자료에 의하면 $L_A = 100$, $K_A = 50$ 이고, $L_B = 180$, $K_B = 60$ 이므로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는 A국이고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는 B국이다.

그리고 생산함수 $X = L^2K$, $Y = LK^2$ 에 의하면 X재는 노동집약재이고 Y재는 자본집약재를 알 수 있다. 그래서 A국은 Y재, B국은 X재에 비교우위가 있다.

20. ③

솔로우 성장 모형에 의하면 기술진보, 저축률 증가, 인구증가를 감소가 인당 소득과 인당 자본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기술진보만 인당 소득과 인당 자본량을 증가시키는 데 장기적으로 한계가 없고, 저축률 증가나 인구증가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인당 소득 및 인당 자본량을 증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황금률 상태에서는 균제상태 성장과 소비의 극대화가 동시에 달성되는 상태이므로 현재 자본량이 황금률 수준보다 클 때는 저축을 감소시켜 자본량을 줄이면 소비는 현재보다 반드시 증가한다.